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3. 05. 03.(수) /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박한선 실장 (051-797-4627) - 김보람 전문연구원 (051-797-4640)	
배포 부서	•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a href="http://www.kmi.re.kr">www.kmi.re.kr</a>		

## KMI, PE(Pacific Environment)와 업무협약(MOU) 체결,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해운기업 탄소제로 및 ESG 경영 등 글로벌 연구협력 추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KMI)과 국제 비영리 단체인 PE(Pacific Environment, 이하 PE)의 메들린 로즈(Madeline Rose) 대표는 5월 3일(수) 제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해운업체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등을 포함한 글로벌 환경문제와 이슈에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Pacific Environment(PE)는 30년 동안 태평양 연안국의 생물다양성 보호, 대기 오염, 해양 생태계 보호, 기후 변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기후 활동 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네트워크인 "CESC(Climate Emergency Shipping Coalition)"에 참여하여 미국 및 글로벌 해양 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과 아시아지역 해운기업의 탈탄소화 정책개발 ▲아시아지역의 ‘그린쉬핑 코리더’ 설계 및 이행전략 개발과 컨설팅 ▲ 2050년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추진, 제로배출 연료 전환정책 공동연구 및 개발 협력 ▲ 2030년까지 블랙카본 제거 및 친환경 극지방 항로 개발 분석 ▲ IMO 온실가스 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 공동 개발 및 컨설팅 ▲연구세미나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MOU 체결의 첫걸음으로 제2회 세계 ESG 포럼에서 '해운기업의  
ESG 책임경영과 미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덴마크의 머스크 맥케니 몰러센터(Maersk MC-kinney  
Moller Center)의 아네 카드린(Anne Katrine) 지속가능전략본부장이 "ESG  
경영을 통한 해운산업의 변화"를 발제하였고, 호주 출신인 DNV-GL의  
조나단(Jonathan) 수석컨설턴트는 "해운기업의 ESG 경영전략과 시사점"을  
발제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한선 해사산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PE의  
메들린 로즈(Madeline Rose) 대표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하여 "해운기업은  
ESG 경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최근 기업이  
직면해 있는 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환경 연구기관인 PE와  
글로벌 정책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KMI가 그 역할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MOU 체결식 사진.

